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국내학술행사

안전과 생명윤리



모시는 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로 모든 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국가혁신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여러 건의 지하철 사고, 고양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책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안전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 공직자 및 업무종사자들의 직무윤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반인들의 안전윤리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 28일 이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행사에서는 법학, 의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소장 장영민

일시 :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오후 1:30 ~ 6: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주요내용
13:00~13:30		등 록
13:30		개 회 사
13:35	축 사	장 영 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소장)
13:40		대규모 안전사고 관련 소회 발표
14:30~15:00	제1발표	한국 사회에서의 직무윤리 권 복 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30	제2발표	신뢰의 문법 강 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15:30~16:00	제3발표	안전사회와 안전윤리, 그리고 안정정책 만들기를 중심으로 이 인 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00~16:10		휴 식
16:10~16:40	제4발표	안전과 생명윤리: 시민윤리로서의 생명윤리의 역할과 과제 최 경 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10	제5발표	전문직 윤리의 귀환?: 생명윤리와 전문성 하 대 청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7:10~17:40	제6발표	안전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가제) 박 수 헌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40~18:00		종 합 토 론
18:05		폐 회

